

社說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학생자치기구를 - 진군하는 23대 총학생회에 바란다

경희 이만학우의 23대 총학생회 진군식이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양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학원의 진정한 민주화와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하여 조국통일 대열에서 최전방에서 서서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한다. 총학생회 진군식을 경희인의 이름으로 기쁘고 축하한다는 것을 우선 말하고 싶고 건투를 바란다. 현 한국사회의 세대와 대학사회의 풍토를 고려할때 이번 출범에 거는 역할과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할 것이다.

대학인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의지의 소산으로 일컬어지는 총학생회는 이땅의 착박한 황무지에 내리는 단비나 다름이 없었다. 돌이켜 보건대 단지 유인물 한장 소지한 형으로 입건되었던 암울하고 열악했던 시대에, 앞서간 대학인들의 피와 땀으로 정취해내고 부활시켰던 총학생회가 아니었던가를 기억해야 한다. 모순의 한계 상황을 한단계 한단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초하고 싸워야 하였는지를 그들은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며 이를 이어 받아 온 것이 23대에 이르렀음은 자못 자랑스럽고 긍지를 지금의 대학인 모두는 간직하여야만 하겠다.

이제 23대 총학생회는 진군하였다. 앞으로의 각종 정치사업과 학사사업의 실천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자들의 집권악취가 점점 노골화될 것이며 학생대중들의 세대 역시 우려할 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학생회 집행부는 자주성과 대중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하는 바램이다. 그동안

의 집행부의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학생대중들에게 공개가 안되지는 부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왔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노정되었던 것을 감안할때 집행부는 기존의 미비점을 극복하려는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문제를 놓고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실을 들고 싶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이고 알찬 사업들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학생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총학생회의 주인 그 구성원은 일반 학생대중들이나 그들이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서는 진지하고도 계속적인 사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지변화와 학생대중들의 참여, 그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일반학생대중들은 각개인의 열망과 편협에만 몰두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이다.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은 그들의 고민과 불편함을 대변하고 대표해 줄 총학생회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관심하고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생각은 크나큰 오류임을 깨달아 주길 바라며 주인으로서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총학생회는 어느 한쪽에서만 예를 써서도 안된다. 진정으로 우리의 총학생회가 되려면, 사회정의의 비판자가 되려면, 학생대중과 집행부 모두의 일치된 하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가슴으로 서는 총학생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육의 질적 발전위한 '자율' 정착돼야 - '대학자율화'를 생각한다

인간의 지적육구는 고대로부터 인류문명과 진화의 근원이 되었다. 교육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학의 과열입시경쟁'이나 '논치' '작전'이나 하는 신조어들을 생성시켰다. 소위 '교육입국의 건설'이라는 국가교육의 목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입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기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

지난 89년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대학자율화' 조치는 최근에 그 의미가 와전되어 등록금의 자율적 결정, 단위학교 재단의 횡포 등에만 적용 되는 면이 없지 않다. 사립학교법 등에서 나타나 대학교육의 진정한 질적 발전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자율권 부여한 셈이된다. 실제로 사립대학자율은 재단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 통제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또한 대학조차도 그 간 학생들과 교육주체인 교수, 직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에 사립학교법을 이용해 왔다.

그렇다면 진정한 대학의 자율은 무엇인가? 권력은 연구와 학문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에게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로 보장해 주지 않은채 대학과 대학구성원을 통제하고만 하지 않았던가.

대학의 자율을 말하기에 앞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구성된 개개인들이 아닌가 한다. 근래들어 심심찮게 들려오는 대학내에서의

사건들, 교수제임용 탈락, 직인 위위제를 통한 노조단압, 시위학생의 수배등으로 대학인이 자신의 인식과 실천에대해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 것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그러한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사법대 출생의 교원임용 고시법의 시행등 반지성적인 정책과 제도를 양산하는 정부의 작태를 볼때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내에서 보면 며칠전 교수-학생간 마찰로 인한 구타사건, 교내외의 도덕성부재에 따른 혼란,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대학에도 깊이 침투해 있는 현실모순의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파행과 굴절의 질곡속에서 새삼스레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의 내용과 환경, 질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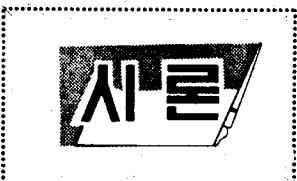
대학의 교육은 강의식·주입식 교육행사가 아니기에 담구와 토론이 활발한 민주적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문의 질과 내용의 발전을 위해 강의식 대학교육은 연구중심의 대학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그간 제도교육의 틀내에서 한정된 조류만을 가르쳐오던 내용과 형식을 벗어나 진정한 학문과 역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학문영역에서의 개방과 자율은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자율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채울 양념은 결국 교육주체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격변의 현실 문화 그 진단과 대응

물질에 오염된 현대문화



사학자 호이정가는 중세말의 문화적 분위기를 진단하여 "중세말의 우울함이 사람들의 영혼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한시대의 문화를 진단한다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객관화하여 보기란 어렵고 또 본다 하더라도 오직 부분만을 보는 위험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속에 사는 우리들은 자신이 숨쉬고 있는 문화를 파악해야할 끊임없는 요구를 받게 된다. 그것이 감각적이었던 논리적이었던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결국 자기의 역사행위나 선택에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시대가 격변의 시기이고 무엇인가 큰 변화를 이끌어 들이는 전환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시대의 변혁을 회망으로 붙잡고 있지 아니한 위기로 불안정인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기는 때로 도전과 찬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자에게 따라 희망이기도 하고 좌절이 될 수도 있다. 인류역사를 통해 볼때 어떠한 위기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하나의 전환적 전진의 기회가 되었다. 고대의 물리학이 그러 했으며 중세의 쇠미가 이를 웅변해 준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를 전환으로 이끄는데에는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수없이 치루어 왔다. 고대의 의미에서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자체 만으로도 성찰의 의미를 지닐것 같다.

이내라 이시대 현실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그 복합성에 있는것 같다. 모든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아직도 농경적 의식과 농업구조가 사회변혁의 강력한 요소로 남아 있으면서도 공업과 노동의 문제가 또한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아방가르드 예술과 문화가 밀물처럼 해일하는 반면 극단적인 보수와 권위주의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도 부인할수 없다. 보편적 세계주의적 학문을 지향하는가 하면, 가장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열이 통일과 학술분야까지를 지배하려 드는것 같다. 한국사회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수 없으며, 그 치유와 열망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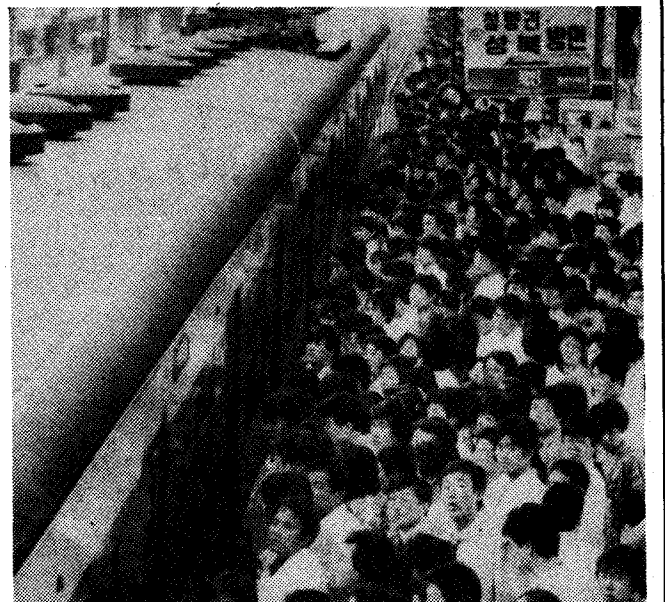
한 매우 다양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하다.

현실문화의 또하나의 속성은 그 급속한 변화의 속도이다. 몇년 전만 해도 이토록 거리를 메우는 자동차 행렬을 볼수 있었는가? 컴퓨터와 FAX, 날로 보편화되는 통신시설은 가히 우리 모두를 한 거미줄에 얹어 매워 놓은듯이 밀접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23년전엔 산 컴퓨팅의 기능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 지기가 일쑤다. 빨리 산 사람일수록 뒤떨어진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역설을 놓고 있다. 선구적 행위가 과정보다 즉각적이지 않고 역류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들이 이제 일상의 책으로 꽃아놓을수 있는 책들도 얼마전에는 금서로 붉은 딱지가 붙었고, 학술토론이나 논쟁장에서 도 이전 거의 금역없이 논쟁을

가는데 여념이 없다. 유명한 상품 브랜드를 사지 않으면 적성이 풀리지 않고 타인들이 보았다는 영화라든가 보지 못하면 불안해 하고 그 수많은 모임들에 초청받지 못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은 소외감을 느낀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어서 불안해 하며 타인과의 동일성을 쫓아 가지 않으면 때로 패배감마저 느낀다. 현대인들은 가장 개성적인듯이 보이지만 사실 비개성화를 추구하고있다.

사실 이 때문에 그들은 아주 쉬운 조작(manipulation)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매스콤에 의해, 상품선전에 따라, 더구나 정치세력과 자본가들에 의해 고도의 조작대상이 되고 있다.

강자의 지배논리가 가장 효용적으로 먹혀들어가고 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이냐가 아니라 무엇



그 수많은 성적유희의 비디오는 무엇 때문에 제작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폭력물과 범죄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모든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상품화 해버리는 이시대의 비정함을 무엇으로 보상 받을수 있단 말인가? 고귀한 정신의 창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마저도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이름으로 그 상품화조차도 정당화 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때문에 '문화적 정신분열증환자'

더구나 이데올로기는 외세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강화되고 이용되는 감마저 있다. 사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것이 우리의 토착적 산물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념이나 가설을 단지 우리사회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유의해야한다. 하버마스의 "자본주의적 논리가 엄존 할때만 마르크스 이론의 중심 카테고리, 즉 계급투쟁과 이데올로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사실 대부분의 현상

상품화 되어가는 문명이 소외감 증폭시켜 사회적 병폐 극복 위한 인간성 회복 절실

한정화시킬수 있게 되었다. 마치 경마경기가 보는것처럼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당연한 긴장은 계속되고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정보와 부와 지식과 본래를 가진 사람이 진리의 배분자가 될 수 있다.

진리와 정의 대신에 성취와 권력과 부가 더 율음것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바, 버려버려야 할것이라는 무한히 짓밟히고 패배를 강요 당한다. 그들의 항거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친것과 같은 비극적 운명마저 느끼게한다.

이시대의 자본논리는 모든것을 상품화 시킨다. 이말은 정신적문화 예술까지도 상품적 가치로 환산 된다는 말이다. 상품화된 문화는 그것이 민족의 전통이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장기적으로 변천여과하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급조되고 판매된다. 이것은 민족문화나 민족문화와는 달리 조작된 소비-상품문화인 것이다. 그 상흔의 위력은 엄청나서 어느 성역에 인정하지 않고 침투한다. 우리주변에 폭우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에로틱한 선정적인 잡지, 비디오 음화에 가까운 영화들은 가정까지도 무차별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으며, 지켜져야할 인간의 정신영역까지도 무차별하게 무너트리고 있다.

이 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가 중요할 것이다. 각자의 개성은 지능적으로 몰수당하고 빈곤간에 조작된 의식과 주장이 끊임 없이 Input되고 있다.

이제 정보와 부와 지식과 본래를 가진 사람이 진리의 배분자가 될 수 있다.

진리와 정의 대신에 성취와 권력과 부가 더 율음것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바, 버려버려야 할것이라는 무한히 짓밟히고 패배를 강요 당한다. 그들의 항거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친것과 같은 비극적 운명마저 느끼게한다.

이시대의 자본논리는 모든것을 상품화 시킨다. 이말은 정신적문화 예술까지도 상품적 가치로 환산 된다는 말이다. 상품화된 문화는 그것이 민족의 전통이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장기적으로 변천여과하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급조되고 판매된다. 이것은 민족문화나 민족문화와는 달리 조작된 소비-상품문화인 것이다. 그 상흔의 위력은 엄청나서 어느 성역에 인정하지 않고 침투한다. 우리주변에 폭우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에로틱한 선정적인 잡지, 비디오 음화에 가까운 영화들은 가정까지도 무차별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으며, 지켜져야할 인간의 정신영역까지도 무차별하게 무너트리고 있다.

으로 점점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해결은 현상적 대응이 아니라 역사적 지혜를 통하여 모두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다. 모든것을 부인하고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부정적 논리에서는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각자가 어떻게 이문화에 해독을 끼치고 있으며,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 어느때 보다도 더 절실하다.

이 석 우
(문리대교수·사학)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산1번지 자동차 한국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국 자동차기술의 요람지-마북리연구소

광주산맥(廣州山脈)이 남으로 뻗어내려 아가자기한 봉우리를 이룬 중부내륙지방,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산1번지 - 현대마북리연구소 / 현대자동차기술의 척도이자 자동차기술의 꽃이라 일컫는 '엔진'을 국내최초로 독자개발에 성공한 자동차 기술의 요람지입니다.



첨 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한다.

1984년 11월, 1만여평의 대지위에 연구동(棟), 시험동, 공장동 등 각종 연구시설과 실험 장비를 갖추고 출발한 마북리연구소 - 이곳은 현재 석·박사 130여명 등 총 500여명의 전문 연구진이 한국자동차기술의 미래에 사활을 걸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의 핵심 부분인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의 독자적인 설계에서부터 고성능·저공해 엔진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험개발, 기초 연구분야의 연소해석과 시뮬레이션 및 유체 유동해석, 새로운 대체연료의 적용시험, 전자제어 시스템 연구에 이르기까지 - 산학협동을 통해 한국자동차기술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 금도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기술의 완전 자립이라는 생존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정한 논리를 깊이 체감하면서 선진기술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 배우고 익히며 밤낮도록 연구실의 불을 밝히는 마북리 사람들 - 선진국의 핵심기술 보호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기술, 우리의 손으로 21세기의 찬란한 자동차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오늘의 정신으로 내일에 도전한다. ①